



과학계 ‘논문조작 파문’ 자성 속 새 각오 다짐

— 2006년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서

글 | 박근태 _ 동아시아뉴스 기자 kunta@donga.com

지난해말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파동으로 큰 충격을 치른 과학계가 자성과 함께 새해 새 출발을 다짐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는 지난 1월 5일 오후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오 명 과학기술부총리, 채영복 과총회장 등 학계와 정·재계 인사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를 열고 과학계의 대국민 신뢰회복과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결의했다.

특히 과학계는 중단 없는 연구개발 노력과 함께 ‘논문조작 사건’으로 떨어진 과학계 위상 회복을 위한 윤리 강화를 내용으로 담은 진실성 선언 채택을 추진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 책임자에게는 과학적으로 책

임을 따지되, 다른 연구자들은 연구에 전념토록 정부와 국민은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잘 잘못도 과학적으로 책임 물어야”

노 대통령은 “지난 2002년 3천755건이던 미국 출원 특허가 2005년엔 4천590건으로 훌쩍 뛰어 세계 4위 수준에 육박했다”면서 “과학기술 경쟁력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과학기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은 “환율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율을 두 자리수로 지켜낸 것은 메모리 반도체와 휴대전화를 비롯한 첨단 과학 기술력”이라며 “지난해 국제 표준으로 지정된 DMB와 초고속 휴대인터넷도 앞으로 20, 30년 뒤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릴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의 성장을 좌우할 미래유망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굴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 내년 상반기 미래유망기술 21개를 발굴해서 정부 차원의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노 대통령은 지난해 일어난 황 교수 논문 조작 파동과 관련해 "많은 젊은 과학자들이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연구에 참여했을 텐데 그 중에는 일부 책임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일부는 그냥 열심히 연구한 죄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생명공학계 전체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어 전체 연구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거나 앓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누구나 홍역 걸리기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기가 홍역을 하면 기뻐한다"며 "이번 일도 우리가 홍역을 앓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사태의 책임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생각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조사결과가 나오면 과학계 외에서도 책임을 져야 할 분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책임 소재도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종종 감정에 휩쓸려 성급히 책임을 묻거나 서로에게 떠넘기는 경향이 있다"면서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동안 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미국의 사례를 들며 "(미국이) 9·11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매우 인색했는데 그렇게 한 데는 나름대로 깊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도 좀 더 차분하게 검토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1.2 개각'으로 퇴임하는 오 명 부총리에게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노 대통령은 "(최근 도약하고 있는 국내 과학기술력과 관련해) 여기에 오기까지 폭넓은 안목과 강한 비전, 추진력을 갖고 이끌어주신 우리 오 장관님 감사하다"고 말하고 "또 다른 분야에서 아이디어와 열정을 얻는다는 차원에서 장관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개각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노 대통령은 "어느 분이 과학기술 부총리를 맡든간에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기술인 사회적 책임과 역할 강화해야

사회적 물의에도 불구하고 과학계가 위축돼서는 안된다며 심기일전을 다지는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도 오갔다. 과총 채영복 회장



'2006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석진 교수, 포항공대 물리학과 이성익 교수, 연세대 화학과 김동호 교수,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남홍길 교수 등 4명이 제10회 한국과학상을,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권영우 교수,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이정훈 교수, 포항공대 환경공학부 최원용 교수 등 3명은 제9회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했다.

은 "지식기반 사회에서 과학기술인의 필요성과 역할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 한해는 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과학 15위, 기술 2위로 평가받을 만큼 크게 약진을 한 한해였다"고 돌아봤다.

채 회장은 "그러나 한편에서 과학기술계를 돌이켜 보면 어두운 면도 없지 않았다"며 "올 한해는 과학기술인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지난해의 교훈을 거울삼아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3만 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으로 힘차게 정진하자"고 강조했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련) 이병기 대표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전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하지만 사실에 기초해야 하는 과학기술자가 진실을 외면할 때 기반을 잃게 되며 과학계뿐만 아니라 국민적 실망이 큰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며 엄격한 윤리의식을 세워 나가자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과학자로서의 양심과 연구윤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차원으로 올해 진

2006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지난 1월 5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오 명 과학기술 부총리, 채영복 과총회장 등 학계와 정·재계 인사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실성 선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여성과학자로서는 처음으로 출연연구소장이 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광화 원장은 "2005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여성과학자대회에 참석한 외국 여성과학자들이 한국의 젊은 여성 연구원들을 보며 그 역동성과 열정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놀라워했다"며 "이는 여성과학자 뿐만 아니라 한국 과학계 모두가 갖고 있는 큰 장점으로 한국 과학계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말했다.

2004년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한 KAIST 신중훈 교수도 "2002년 4강 신화를 달성할 수 있었던 까닭은 우수한 인재를 뽑는 정교한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며 올해도 월드컵의 해이니 만큼 과학 분야에서 그런 신화와 신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덕담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수학 분야에서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석진 교수, 물리 분야에서 포항공대 물리학과 이성의 교수, 화학분야에서는 연세대 화학과 김동호 교수, 생명과학 분야에서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남홍길 교수 등 4명이 '국내 과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한국과학상을 수상했다.

강 교수는 '영 월(Young Wall)조합론'이란 새 방법론을 고안해 현대수학의 핵심 연구과제인 '양자군'의 성질을 규명한 공로가 높게 평가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교수는 새로운 초전도체를 개발

하고 초전도의 새로운 개념을 확립한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김 교수는 인공 생리활성 분자계의 에너지와 전자전달 현상을 규명한 업적이 높게 평가됐다. 남 교수는 식물이 빛의 양과 밤낮의 길이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적응하는 과정을 분자 수준에서 규명한 성과가 높게 인정받았다.

이 밖에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권영우 교수와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이정훈 교수, 포항공대 환경공학부 최원용 교수 등 3명은 제9회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했다. 권 교수는 밀리미터파 집적 시스템 연구가, 이 교수는 나노·마이크로 융합기술 개발에서, 최 교수는 광촉매의 환경 응용 및 물리화학적 환경 연구에서 보여준 연구 성과와 열정이 인정됐다.

한국과학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상장과 5천만 원의 포상금이,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에게는 향후 5년간 매년 3천만 원의 연구장려금이 지급된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최근의 황 교수 논문조작 파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많은 7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ST**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과학기술인 여러분! 그리고 많은 내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계를 대표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대학을 대표하시는 분들, 국회의원님들도 오셨고, 기업에서도 몇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경제단체 여러분들, 그리고 외교사절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다 호명하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냥 묶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새해 또 하시는 일 성취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을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들어올 때, 처음 올 때는 표정들이 덩덤하셨습니다. 영상물 상영을 끝내고 여러분들 얼굴을 제가 다시 봤더니 아주 활짝 피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영상물이 여러분들을 매우 기쁘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상물을 보면서 낭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아는 척하려고 적어왔는데 메모를, 말할 거리를 메모를 해왔는데 영상물에 다 나오니까 조마조마합니다.

저것만 나오고 더 안 나오면 좋겠는데 했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자주 나와서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되는지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라도 같은 내용이라도 말하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다르고 또 느낌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굳이 짧은 실력으로 그걸 피해서 다른 얘기 꺼내지 않고 그냥 준비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매년 기술경쟁력, 과학경쟁력이 해마다 향상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속도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수치로서 의미있는 것은 미국의 특허등록 수가 2002년에 3천755건이었습니다. 세계 7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편입니다. 그런데 2005년에 와서는 4천 590건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그리고 순위도 세계 4위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산업화부문의 성과도 아주 본격화해서 세계 일류상품의 수가 2002년에는 278개 정도였는데 이것이 2005년에는 505개로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기술 수출액 또는 기술도입된 비율도 두 배 정도가 이렇게 향상됐습니다. 2002년과 4년을 이후해서 두 배 정도 향상됐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수출도 고유가, 그리고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해서 두 자릿수로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19.3%, 2004년에는 31%를 했었지요. 그리고 이제 2005년에는 19.2%를 지켰습니다.

고유가 그리고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켜냈습니다.

참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수출액은 2천847억 불인데요, 이것은 산자부장관이 연초에 국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액수가 2천850억 불이었습니다.

3억 불 미달입니다.

이것은 산자부 장관 그만두시기 전에 어떻게든 채워놓으시기로 자랑 약속을 했습니다.

무역흑자가 235억 불 수준으로 뛴습니다.

최근 경제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더 내리막으로 떨어지지 않게 지켜온 것도 과학기술이고,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어 가는 것도 역시 과학기술 덕분입니다.

잘 지켜주시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조선, LCD, CDMA 등등 첨단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계속 넓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버텨주고 있고 또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휴대 인터넷, 그리고 DMB 등이 세계 표준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20, 30년 후에 무얼 먹고 살까 항상 우리가 걱정을 했는데 이 때를 뒷받침할 여러 개의 유망기술들이 지금 잘 가꾸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과위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유망기술 21개를 발굴해서 내년 상반

기에 종합육성계획이 수립이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곳으로 나오기 전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채팅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올해 BK21에 관한 계획, 2011년까지 약 2조 300억 원 정도 들여서 계속 해나가겠다는 것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학기술계가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동안에 정부는 뭐했냐. 이게 이제 항상 그 다음 저희가 답답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들께서 미리 과학기술행정체제혁신을 오늘 영상물로써 보고를 해주셔서 제가 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고 치사를 챙겨주신데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과학기술 행정체제를 완전히 새롭게 혁신해서 자리를 완전히 잡았구요. 그 다음에 이제 2006년 예산에서는 조금 전에 그래프에서 나왔듯이 9조 원 가까운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과학기술국제 발행제도를 새롭게 도입해서 그것을 통해서 또 좀더 속도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제가 대통령 후보로서 대덕에 있는 과학기술인 모임에 몇 번 갔었는데 그때 참 가슴 답답한 말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얘기가 '아버지 나 이공계대학 갈래.' 이것이 요즘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골을 지르는, 소위 골 지르는 가장 효과있는 협박이라고 그런 자조섞인 말씀들을 하실 때 이를 어떻게 하나 하고 정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노력을 끝에 그 소리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안 하지요?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을 합해서 노력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기까지 아주 폭넓은 안목, 그리고 비전과 추진력을 가지고 과학기술행정을 이끌어주신 오 명 장관님 감사합니다.

제 생각은 장관을 한 2년 정도 하시면 가지고 있는 밀천을 다 털어냈다고 보고 또 다른 분의 아이디어와 그 상상력을, 정열과 상상력을 또 좀 내놓게 한다는 뜻에서 장관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만두시겠다는 뜻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상당히 여러 달 전부터 조심스럽게 사의를 표현해 오셨는데 연말까지는 해주십사 하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실 때가 됐습니다.

과학기술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좋은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안 쳐주십니까?

(일동 박수)

어느 분이 과학기술 부총리를 맡아서 과학기술 행정을 이끌든 대통령으로서 확실히 뒷받침을 하였습니다.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미래성장산업에 대해서 세계적인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인력 등 정부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력이 기업간 그리고 지방간에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함께 추구하고 있는 동반성장,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계도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그리고 지방에도 국민들이 함께 활력있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활력있게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런 생활을 연구하고 또 개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의 혜택이 골고루 퍼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마련해서 제시해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하나 이제 빠뜨렸는데 인력양성에 있어서 과학기술계가 필요로 한 인력, 그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요를 잘 파악해서 내주시는 대로 교육부로 하여금 그런 영역에서 제대로 된 기술인력, 과학인력의 양성체제를 갖추어서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 경제를 힘차게 이끌어 갈 수 있게 그렇게 교육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체제에 있어서 여러 부문이 다 잘 돼야겠지만 과총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허청이 올해 정부혁신분야 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혁신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혁신의 핵심은 역시 특허심사의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물론 인력도 늘려주었지만 그밖에 여러 가지 근무형태의 변화도 시도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이루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들을 그냥 국내에서 평가해서 1등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조달시스템이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서울시의 민원행정 실시간을 추적할 수 있는, 실시간을 공개할 수 시스템이 역시 세계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관세행정에 있어서 통관업무의 혁신, 전산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시스템 혁신을 통해서 역시 세계적인 명물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특허 심사나 특허 과학기술자원관리 시스템도 저는 이것이 세계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도 좀더 과학화하고 기술혁신을 계속 이루어서 역시 이제 행정분야에서 혁신결과도 세계적인 상품이 될 수 있기에 문에 내놓겠습니다.

그밖에 우리 국내에서 서로 벤치마킹할 만한 우수한 사람들은 내가 짧은 시간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오

지 않았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관심갖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허청이 그런데 과학기술부 소관입니까?

산업자원부 소관입니까?

과학기술 부총리 소관에는 들어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또 과학기술부 소관이면 박수 한번 치자고 하려고 했는데, 산자부면 어떻습니까?

과학기술 부총리 소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노력한 성과들이 하나씩 돌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부시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입니다.

BT 분야에서 우리가 IT, IT했는데 BT 그만하게 됐다고 아주 작년 한해 기분이 좋았는데 결과가 끝까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것은 알겠지만 대개 그냥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많은 젊은 과학자들이 열정을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이 연구에 참여했을 텐데 그 중에는 일부는 책임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일부는 그냥 열심히 한 죄박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국민들의 시선은 그 주변 상당히 가까운 다른 곳까지 어디까지가 긴지도 모르고 보기에 따라서는 생명공학계 전체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싸늘한 눈초리로 볼 수도 있을 거라는 걱정이 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연구에 대한 국민적 지원의 분위기라든지 또는 정부 책임자들도 자꾸만 지원을 하는데 그 분야에 주춤주춤 해질 수 있다는, 망설여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이 분야, 그 주변 영역에 있는, 일하던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계십니다만 책임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게 하되 책임 없이 그 주변에 있었던 죄인, 막연한 죄인들은 계속 연구에 전념하고 몰두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주면 좋겠고 정부로서도 책임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가다듬어서 연구에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게 한번 믿어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박수)

누구나 흥역 걸리기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또 아이가 흥역을 하면 기뻐합니다.

그렇듯이 이번 이 불행한 일도, 부끄러운 일도 흥역 앓는 일처럼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또한 우리 과학기술이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좋은 밑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이 그냥 가다가 이보다 더 나쁜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 잘못을 지표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이

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이런 일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한단계 더 높은 성숙한 역량을 우리가 비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어떻게 보면 큰 손실이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런 진통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가 최대한의 교훈을 쌓아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극복해나간다면 그것 또한 우리 국민의 역량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면 과학계 이외에서도 혹시 책임이 있는 분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책임도 과학적으로 물어야 되는데 분위기로 그냥 사전부터 '네 책임이지 네 책임이지' 서로를 쳐다보기보다는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도 역시 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사실에 근거해서, 정보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막연한 분위기에서 '너 너' 하고 책임을 몰아붙이는 이런 일은 없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동안에 정부의 책임을 사회적 분위기가 물어본 몇 번의 계기에서 제가 이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건을 얘기하면 또 그것이 화제가 되고 애것거리가 될 것 같고 합니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는 책임을 물을 일이 발생하면 역시 과학적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물어나가는 그와 같은 행정풍토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미국에서 911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엄청난 사건이었고 보기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데 매우 인색했습니다.

그것이 꼭 올바른 일인지는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내가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와 같은 합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회에서조차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로 생각하는 그 사회에서조차 그 문제의 책임을 묻지 않은데는 그 나름대로의 깊이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를 좀더 차분하게, 분위기를 제가 그렇게, 이렇게 해가면 2006년 한해는 또 여러분들이 국민들에게 큰 자신감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업적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노력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